조계사 채용박람회…'참 잘한 일'

총 6개 협력 업체
사찰고용센터서도
프로그램 등 소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스님)가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 상담전문 배소영 가이사고 일자리를 같은 종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0월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행한 것이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 개설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서 사부대중 관음재 법륜스님이 참석했다.

일자리 나눔터는 취업상담, 인재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종무소 산하에 문을 열었으며, 4월 종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사임을 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사찰 구인의 의뢰처럼 활 등로 여럽을 목록이 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모아인재센터, 에이스에듀, 라니나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주방조리공, 간호조무사, 지류월렉에, 주방, 요양보호사, 미화원, 사찰사무장, 종무원 등 단 일한 직종의 인력 90여명을 모집하는 자리였다. 서울고용센터 등에서도 국내지원프로그램, 청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로 중년단일에 서, 중장년, 은퇴자, 노인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했다. 사찰을 찾는 연령대를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인접을 원 했다.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실시 한 행사장에는 총 3000명이 다녀 갔다. 이 가운데 총 1400명이 구직 상담을 받았으며, 103명이 구직신 청을 접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취업상담센터가이사도 총 40명이 상 담 및 접수를 했다. 6개의 업체에도 60여명이 골고루 상담 및 면접을 하고 돌아갔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랫동안 법계 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 전문분야에 일하고 싶다는 한 30대 참가자는 "종장년층 사찰에서 일 을 할지는 받고 싶다. 이번에 꼭 직 장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기대했던 것보다 방문객 수가 적어 일부은 안내를 잘지 못했다 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일 이 다음에는 행사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광일보다 주말에 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이 날 행사는 "참 각종 사람들로 지리 잡은 심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찰서 열리게 마련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며 "종 보가 달 돼서 그런지 오전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용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나눔터 운영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기업이나 업체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자리 나눔터는 개소 이후 40%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총 188명이 구인을 신청하고 38명이 에업에서 가연등 선 전문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한 30대 참가자는 "종장년층 상담교사, 경비 · 주차관리인, 주방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왔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올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운영 라고 있다. 상담은 사무실을 내면 하거나 전화도도 할 수 있다. 구직 구인 희망자는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챙겨와 나눔터를 방문 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 하면 된다.

홍다영 기자 hong@ibulgo.com

사찰 조계사는 10월25일 관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사 일자리나눔터에서 상담하는 장면.

체계적 조직적 봉사활동 '기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제선센터' 교육 실시
자원봉사단 지회 등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0월22일 서울 학림 국제선센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의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불교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불교계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속에 불교의 역할을 보사교육에 국제선센터 주지 탄일스님을 비롯해 신도 8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을 주제 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희중종 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주민정 복지재단 부장이 각각 강사로 나서 불교자원봉사자가 갖춰야할 자세와 불교자재의 의미에 대해 강의했다.

10월20일 사회복지재단이 국제선센터에서 실시한 사찰 순례 자원봉사교육에서 희중종 사무국장이 불교자원봉사 인 실천도량 명파를 한달하는 모습.

이어 교육을 모두 마친 불교자원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스님을 찾아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교육에 이어 국제선센터가 조계종 자원봉사자 지회 등록했으며, 국제선센터에는 자원봉사 실천도량 명파가 전달돼 앞으로 복지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불교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해졌다. 사회복지재단은 앞 으로도 일반인 대상 교육과 그 밖의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펼쳐 계획이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일스님은 "사원복지센터와 연계해 봉사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불사 교육을 잘 배우고 앞으로 더 활기찬 자원봉사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주 봉사활동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원복지재단 지원도 등록한 만큼 긴과와 자원봉사 공고 활동을 수 있게 됐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해 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태규** 기자

불교방송 이사 미산·능원스님 … 울산 사장 오성스님

사장직무규정 '폐지'
84차 이사회서 의결

불교방송 신임 이사에 중앙승가대 총장직무대행 미산스님과 능원스님 보리암 주지 능원스님이 선임됐다. 또한 불교방송 사장직무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규관리 규정도 개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사진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 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은 심의만 마치고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불교방송은 지난 10월25일 사찰 마당 기린로빌 백팔상회에서 이사장 종래스님을 비롯해 법혜스님, 장재스님, 원혜정사, 이재웅, 구상진, 김윤수 등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 데 제84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 해심안건은 소위원회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었다. 정관 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무원장 등 이사 2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이 핵심이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 2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역시 이 소위 모양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또한 사장직무규정 폐지의 건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불교방송 사장의 경영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조계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 등록자원봉사 등 제도를 마련하고 불교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다영 기자 hong@ibulg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원혜 34대 종무원 집행부를 이끌어 갈 신임 무원장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지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홍법무원장이 원명, 문화무원 혜일, 사사실장 심검, 총무무원 종훈, 총무원장 자승스님, 기획실장 일타, 사회무원 보조, 재무무원 보경, 종책특보단장 원녕스님.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이끌어갈 스님들, 어떤 분들인가…

일감스님 템플스테이 대중화 '상징'
(기획실장)

혜일스님 나눔 활동 활성화 '앞장'
(문화부장)

보화스님 큰절 실림하며 사회 '기여'
(사회부장)

원명스님 지역포교 사회복지 '헌신'
(호법부장서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20일 34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총무원 부·실장 및 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 사사실장 심검스님이 유임되 가운데, 심검스님은 지난 30대에 이어 34대 총무원장 스님을 보필하는 최장수 사사실장의 기록을 세웠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원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해인사에서 법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선원, 고불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금산사 수련원장, 지심과대표사무국장로 사 무총장, 종헌종법무부장, 불교선문 사 주간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금 산사 수련원장 재임 당시 템플스테 이를 통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새로 운 수행 기풍조성에 노력을 쏟아 의 정받아 2000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 기도 했다.

재무부장 보경스님은 법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해인사에서 법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96년 통도사에서 청파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선암 반야선원, 양산암 선원, 대원사 동국선원, 대원암 선원에서 정진했다.

문화부장 혜일스님은 법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연화사, 흥천사 주지, 총무원 조사국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아한 다문화종무총장을 맡아 불교교의 사회적 기여나 나눔등에 앞장서 고 있다.

사회부장 보화스님은 덕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1년 해인사에서 고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재무국장, 교구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영축총림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구미 선산 영대사 주지다.

호법부장 서리 원명스님은 능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7년 월정사에서 법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출가 이후 20년가량 선안대에 수행생활 전념했다 스님은 2000년 상좌사 주지로 부임해 지역포교에 노력은 쏟아 을 남겼다. 스님은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동해불교대학을 개설했고 바라밀유치원, 상좌사 노인요양원 등을 개원해 지역복지와 포교에 힘썼다. 스님이 재원한 상좌사 수행처는 전라사와 함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총무원장 제22조에 따르면 종법부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12일 개원한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법부장 서리 원명스님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책특보단장 정녕스님은 성동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과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보좌 등 직을 역임했다. 사회법제 사사실장 심검스님은 1981년 해인사에서 고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있다. 승가대학 대학원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운광 사미는 "출가 이전 학력이 인정돼 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출가 이전 불교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강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광 사미의 주장처럼 승가대학 교육은 단순히 불교 이론과 교리에 대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속의 때를 벗고 사미가 지 켜야 할 덕목을 배우는 것도 함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광 사미는 승가대학도 다니지 않고, 대중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물론 선가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을 단순히 운광 사미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미의 돌발 행동을 새대로 관리하지 못한 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미를 새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듬지 못한 이유도 대목이다.

종헌 종법종은 수행자 양고 사원만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사원법 제 소 시 이를 염려하게 규제하는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조계사 상담 실장 원만스님은 "지역보다 종도로 서 종헌과 종헌을 준수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 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종헌 종헌 을 따르고 불리하면 사원법에 새소 시 이를 염려하게 규제하는 제도 "양으로 종헌 강좌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의원 25명 '수사' 청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여전 히 진행됐다. 운광 사미가 감행하 종헌 종헌과 조계종 무원장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청원서를 국회 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중앙종회의 원 25명 스님들은 "위공스 사건을 영원하게 수사하고 피고소인이 영장 기 인정된다면 영원에 영기를 내려 도록 명원해줘서 법자주의 근거임을 마로 세워 달라"는 취지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즉 사기꾼 일으킨 불임이 국민도 여지 변인 것이다.

임태규 기자 cwt1@ibulgo.com

"와 예비승인 사미가 폭로전에 뛰어들었나"

자장암 인수인계도 거부
종헌종법 무시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인식 드러내

선거 진행에 혼란 야기
언론 통해 논란 확대돼

⋮

2000년 출가 이후
정식으로 계 받지 않고
승가대학도 거치지 않아

예비승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제일법지 제도보완도 필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우려되던 폭력전이 나타나 고 전 오어사 주지 광주스님과 운광 사미(사미계로 폭로가 이어지면서 선거 과정이 얼룩졌다. 과거에도 이같은 폭로가 존재했지만 이번 폭로전은 특히 그 양상이 달랐다. 폭로의 중심에 선 인물이 정식 구족계 받지 않은 '사미' 라는 점 때문이다.

운광 사미는 단순히 폭로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 내 사정기관을 제보를 가지지 않고 사회법으로 해결하려 들었다는 문제를 확대시켰다. 도 연금을 자신에게 유리해져 활용해져 유연성이후 무분별해 져 유포됐다. 상대자 폭행 교사 혐의로 전직 총무원장을 검찰에 제소, 논쟁이 사회적이 여기됐다. 이 모 전 총무원장은 "운광 사미가 주장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유포되어 논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은 그때 주장이 어디 와 왜 예비승인 사미가 폭로전에 뛰어들게 됐는가는 점이다. 운광 사미는 폭로전은 수쟁자로서의 자재 보족, 오어사 자장암 불리한 이해 관계, 종헌 종법을 무시하고 사법법으로 해결하려는 인식, 승가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미를 보듬어 지 못했던 교육 현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오어사 자장암 관할이었던 운광 사미는 원상복인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폭로전에 뛰어들었다. 2000년 출 가 이후 운광 사미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계를 받지 않고 있다. 승가대학 (강원)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운광 사미는 "출가 이전 학력이 인정돼 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출가 이전 불교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강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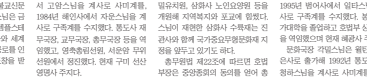
하지만 운광 사미의 주장처럼 승가대학 교육은 단순히 불교 이론과 교리에 대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속의 때를 벗고 사미가 지켜야 할 덕목을 배우는 것도 함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광 사미는 승가대학도 다니지 않고, 대중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물론 선가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전을 단순히 운광 사미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미의 돌발 행동을 새대로 관리하지 못한 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미를 새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듬지 못한 이유도 대목이다.

종헌 종법종은 수행자 양고 사원만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사원법 제 소 시 이를 염려하게 규제하는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조계사 상담 실장 원만스님은 "지역보다 종도로 서 종헌과 종헌을 준수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 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종헌 종헌 을 따르고 불리하면 사원법에 새소 시 이를 염려하게 규제하는 제도 "양으로 종헌 강좌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의원 25명 '수사' 청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여전 히 진행됐다. 운광 사미가 감행하 종헌 종헌과 조계종 무원장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청원서를 국회 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중앙종회의 원 25명 스님들은 "위공스 사건을 영원하게 수사하고 피고소인이 영장 기 인정된다면 영원에 영기를 내려 도록 명원해줘서 법자주의 근거임을 마로 세워 달라"는 취지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즉 사기꾼 일으킨 불임이 국민도 여지 변인 것이다.

임태규 기자 cwt1@ibulgo.com



보훈스님 김사국장 | 명선스님 재무국장 | 각밀스님 문화국장 | 성상스님 홍법국장 | 도빈스님 상임감찰

■ 기획/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회고와 전망 ⑤ 운광(적광)사미의 폭로전 (중)

사진 신재호 기자 sir33@ibulgo.com
이연호 기자 ennsa@ibulgo.com